

# 7명 숨진 상주 '블랙아이스' 미끄러져도 브레이크 금물



14일 오전 경북 군위군 상주영천고속도로에서 도로 결빙으로 인한 2건의 다중추돌 사고와 차량 화재가 발생했다.

14일 오전 4시44분쯤 경북 군위군 소보면 달산리 상주~영천고속도로에서 차량 40여대가 두 곳에서 연쇄 추돌해 7명이 숨지고 32명이 다치는 대형 사고가 발생했다.

블랙아이스가 만들어진 도로가 위험한 이유는 △육안으로 구분이 어렵고 △일반도로보다 14배 미끄러워 안전거리·감속 중요...최대한 차 움직이는대로 뒤야

## 육안으로 구분 어렵고 일반도로보다 14배 미끄러워 안전거리·감속 중요...최대한 차 움직이는대로 뒤야

경찰과 소방당국은 이번 사고가 '블랙아이스'(black ice) 때문에 차량들이 미끄러져 사고가 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블랙아이스란 도로 위에 녹아있던 눈 또는 비가 기온이 내려가면서 아주 얇은 빙판처럼 얼어붙는 현상을 말한다.

이렇게 생성된 얼음막은 아주 얇아, 검은색 아스팔트의 색이 그대로 드러나 보이는 현상 때문에 블랙아이스라는 이름이 붙었다.

일반 빙판길과는 다르게 육안으로 구분이 어려워 사고가 발생하기 더 쉽다. 사고가 난 상주지역은 블랙아이스가 만들어지기 위한 조건을 갖춘 상태였다. 기상청에 따르면 14일 상주에는 새벽까지 0.7mm의 비가 내렸고, 기온도 영하 1.5~0도로 떨어졌다. 비로 인해 형성된 도로 위 수막이 블랙아이스로 바뀔 수 있는 충분한 조건이었다.

비해 빨리 차가워지기 때문에 블랙아이스가 쉽게 생길 수 있다.

만약 블랙아이스가 만들어진 도로 위에서 미끄러지거나 앞차가 미끄러져서 피해야 한다면, 핸들을 크게 돌리거나 브레이크는 밟지 않아야 한다. 브레이크를 밟거나 급회전을 시도할 경우 차가 제어를 전혀 못 하게 될 수 있어서다.

이럴 때에는 가속페달에서 발을 떼고 양손으로 운전대를 잡은 뒤 최대한 차가 흐르는 대로 움직이는 것이 좋다. 또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을 염두하고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최대한 확보해두어야 하는 것도 중요하다.

블랙아이스가 발생하는 겨울철에는 주행 상황에서 주의도 중요하지만 주행을 하지 않는 평소에도 차량을 관리해주는 것이 중요하다.

먼저 출발 전 엔진오일을 예열하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 추우면 엔진오일의 유동성이 떨어져 오일펌프 내 순환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30초 내외의 예열을 하고 출발하고, 운전을 마친 이후에도 엔진의 열기가 어느 정도 식은 뒤 시동을 끄는 것이 좋다.

겨울철엔 겨울용 타이어를 사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기온이 내려가면서 타이어 고무가 열며 딱딱해지면 빙판길이나 블랙아이스 위에서 접지력이 떨어지며 사고발생 확률이 높아진다. 날씨가 추워지면 쉽게 성능이 떨어지는 배터리도 미리미리 점검을 해주어야 한다. 차량 보닛을 열고 배터리 상단부분의 점검장 색을 확인해두기만 하면 된다. 녹색은 정상이라는 뜻이며 검은색은 충전이 필요하다는 의미, 흰색이면 즉시 교체해야 한다는 표시다.

호남신문 062)229-6000 062)222-5548

## 전자담배업계 반발에 정부 "미량이라도 검출된 사실이 중요...사용중단 유지"

업계 "미국과 사례 달라...정부가 부정적 여론 조장"

폐손상 의심물질로 지목된 '비타민E 아세테이트'가 극소량 검출됐음에도 정부가 국민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전자담배업계의 주장에 대해 정부는 미량이라도 실제 검출된 만큼 사용중단 권고 철회는 없다고 못 박았다.

으로 국내 유통 액상형 전자담배에 다른 가향물질이 검출되는 지도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식약처는 국내 유통되는 153개 액상형 전자담배(담배·유사담배 포함)의 액상을 분석한 결과, 유해 물질들이 검출됐다고 지난 12일 밝혔다.

나성웅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국장은 15일 "극소량이라도 해당 물질이 발견된 것 자체가 중요하다"며 "가향물질까지 검출됐고, 폐질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 결과가 명확히 나올 때까지 사용중단 권고를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규제방안이 없는 유사담배 유통량도 매우 많고, 국민에 위해가 되는 것은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마유래성분(THC)은 나오지 않았지만 미국서 폐손상 의심물질로 강하게 지목된 '비타민E 아세테이트'는 총 13개 제품에서 0.1~8.4ppm(mg/kg)의 범위로 검출됐다. 이 중 담배로 분류되는 케이티앤지(KT&G)의 '시드 토박' 제품에서 '비타민E 아세테이트'가 0.1ppm, 쥘렛스의 '썬팟 크리스프'에서 0.8ppm이 확인됐다. 조사된 가향물질 3종은 43개 제품에서 1종 이상, 6개 제품에서 3종이 동시에 검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관계자도 "실제 미량이라도 검출됐기 때문에 주의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앞

정부는 중증 폐손상 원인이 규명되기까지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 중단 권고를 유지하고 '비타민E 아세테이트' 임의첨가 및 사용금지를 추가 권고했다.

이에 대해 한국전자담배산업협회는 지난 13일 서울 명동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국사례와 달리 위험물질이 극소량 검출됐음에도 정부는 부정적인 여론을 조장하고 있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철회를 하지 않을 경우엔 불안감 증폭과 관련 소비자 생계에 피해를 입힌 점을 근거로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언급했다.

정부는 2020년 3월 평가결과가 나올 때까지 사용중단 권고를 유지할 계획이다. 질병관리본부는 '비타민E 아세테이트' 등의 폐손상 유발 여부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 조사감시 및 연구결과를 관련 전문가들과 함께 종합적으로 검토해 발표할 예정이다.

뉴스1



"동지 팔죽 드실 분 줄을 서시오" 경북 포항불교사망연합회가 15일 북구 중앙동 중앙상가에서 동지 팔죽 나눔 행사를 갖고 시민들에게 5000인분을 나눠줬다.

## 경찰, 내년 4월 총선 앞두고 선거사범 단속체계 돌입

금품선거 등 5대 선거범죄는 무관용 원칙

경찰이 내년 4월 15일 실시되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16일부터 본격적인 선거사범 단속 체계에 돌입한다.

으로 보고, 전국 255개 경찰서에 선거사범 수사전담반을 편성해 선거사범 수사전담반을 편성해 선거사범 수사를 강화하고 엄정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

경찰은 또 사이버 선거사범 신고·수사 체계를 구축해 사회관계

망서비스(SNS) 등을 통한 가짜뉴스 유포, 선관위·정당 홈페이지 해킹 및 디도스 공격 등 사이버상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대응할 계획이다.

경찰은 특히 금품 선거, 거짓말 선거, 불법선전, 불법단체 동원, 선거폭력 등 5대 선거범죄에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정하게 단속할 방침이다.

# 모두, 안녕하세요?

우리 민척이요... 자레치로중에 있습니다.

처음에 많이 놀랐지만, 영유아건강검진으로 일찍 알게 돼서 부모로서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앞으로 어떤 계획을 세워야 하는지 잘 알게 되었습니다.

영유아건강검진 덕분에 안녕이랑 말을 다시 돌아옵니다.

대한민국 부모님들, 다들 안녕하시죠?

영유아건강검진 중 자레치가발, 자레치로 중인 민척군

탄생의 순간부터 평생 동안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가 함께 합니다

**국가건강검진**

일반 건강검진

생애전환기 건강검진

구강 검진

암 검진

영유아 건강검진

영유아건강검진은 생후 4개월부터 7개월까지의 모든 영유아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연말에는 검진 7인이 혼잡하오니, 미리 미리 검진 받으세요.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